

생성의미론적 합성어형성

田 相 範
(영어교육과)

I. 머 리 말

Lees(1960)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생성문법을 실제 언어 현상에 적용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로서 뛰어난 그 직관이 높이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결정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Chomsky(1970)을 끝으로 그를 포함한 생성의미론자들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합성어가 갖는 뜻의 애매성이나 문법성의 근원을 통사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Levi(1978)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양을 달리하며 되풀이되고 있다. Roeper/Siegel(1978)은 비록 어휘변형(*lexical 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으나 결국은 합성의 뜻을 그 기저형에서 찾자는 것이고, 합성어형성규칙은 통사부의 규칙과 다를 것이 없다는 Selkirk(1982)를 거치면서 최근에 Sproat(1985)와 Lieber(1988, 1992)에 이르러서는 통사부가 있는 한 형태부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형태론 연구는 Lees(1960)의 망령에 시달려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Lees(1960)과 이것의 발전형인 Levi(1978)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점들을 명확히 밝혀 내어 앞으로의 형태론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II. Lees(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

생성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합성어를 다룬 최초의 시도는 Lees(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생성문법의 이론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폭 넓은 합성어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선 지금까지의 합성어 연구의 과정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즉물적(*physical*)인 분석 방법이 당연하게 될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Lees, 1960: *xxi* & 118-9)

(1) TALKING MACHINE	= machine which talks
EATING APPLE	= apple for eating
WASHING MACHINE	= machine for washing things
BOILING POINT	= point of boiling
LAUGHING GAS	= gas which causes laughing
FISHING VILLAGE	= village in which they fish
BAKING POWDER	= powder for baking (with)
HUNTING DOG	= dog with which one hunts

미국의 구조언어학으로 대표되는 즉물적 분석법에서는 가시적인 강세곡선, 접사 형태소의 연결 순서, 일정 품사의 정해진 순서 따위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므로 (1)의 예들은 모두 동일한 형태로 취급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Lees의 이와 같은 지적은 Jespersen에 대한 구조주의자들의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Chomsky의 반박, 그리고 Jespersen(1937), *Analytic Syntax*에 대한 재평가와 이의 복간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연상케 해준다. Jespersen은 연결(連接 junction)과 연계(連繫 nexus)를 설명하는 여러 자리에서 (2)의 두 예는 그 표면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2) (a) doctor's house
(b) doctor's arrival

(2)의 두 구는 모두 소유격 명사와 또 다른 명사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a)는 정적(靜的)인 내용을 갖는데 반해 (2b)는 동적(動的)인 내용을 갖는다. 그 차이는 (3)에서 더 극명히 나타난다.

- (3) (a) I saw *the doctor's house*.
(b) I saw *the doctor's arrival*.

(3b)의 *the doctor's arrival*은 그 자체로서 주어+동사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1)의 예들은 그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결들여 놓은 해석이 말해주듯 다양한 문법관계를 가지고 있다.

Lees는 Jespersen(1942),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

Morphology는 그 뛰어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합성명사의 분류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Jespersen은 표면상의 모양에 따라 합성어를 실사합성어(實辭合成語 substantive-compound), 연쇄합성어(連鎖合成語 string-compound), 절단합성어(切斷合成語 clipped-compound)로 나누고, 다시 이들을 그 구성원들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사합성어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하위범주로 나누고 있다 (Jespersen, 1942: 142).

- (4) (a) AB means B modified by A: *gas-light*
- (b) AB means A modified by B: *tiptoe*
- (c) AB means A plus B: *Alsace-Lorraine*
- (d) AB means : at the same time A and B: *maid-servant*
- (e) Bahuvrihi-compounds: *red-coat*
- (f) Type *son-in-law*

물론 합성어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Jespersen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5) As already mentioned (8.14), the number of possible log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elements is endless. The following grouping, therefore, does not pretend to any degree of exhaustiveness, but is meant merely to illustrate the manifoldness of the relations (Jespersen, 1942: 143).

Lees는 N+V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 *sunrise*와 *sun-worship*의 경우, *sun*이 전자에서는 후속하는 동사에 대해 주어임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동사의 목적어라는 사실을 지적한 Jespersen이 어찌하여 이들을 각기 *The sun rises*와 *John worships the sun*과 같은 문장과 관련짓지 못했는가를 아쉬워하고 있다. 이것은 Jespersen의 출발이 의미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미론적인 분류학(semantic taxonomy)이 겪어야 하는 한계를 Jespersen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Lees는 생각하고 있다.

우선 Lees는 단순한 연결(simple concatenation)을 명사적합성어(nominal compound) 형성의 한 모델로 생각해 본다. 이것은 우선 (6)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회기성(recursiveness)을 설명해주며, 한편 N_1 이 N_2 를 수식한다고 하면 (7)의 (a, b)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다.

- (6) typewriter repair, repair shop, typewriter repair shop, typewriter repair shop supplies, etc.

(7) (a) flower garden

(b) garden flower

그러나 (8)과 같은 경우를 보면 단순히 N_1 이 N_2 를 수식한다고 해서는 합성어가 갖는 뜻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8) (a) man-servant = 술어+주어

(b) windmill = 주어+목적어

(c) flour mill = 목적어+주어

(8)의 합성어들은 표면상 모두 명사+명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8)에서 보듯 서로 같지 않다. 합성명사들이 가지고 이와 같은 문법구조의 차이는 이들을 각기 (9)에 인용한 것과 같은 문장들의 기저형에서 도출할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Lees는 주장한다.

(9) (a) man-servant \Leftarrow The servant is a man.

(b) windmill \Leftarrow Wind powers the mill.

(c) flour mill \Leftarrow The mill grinds the flour.¹⁾

이와 같은 설명은 예를 들어 snake-poison과 같은 합성어가 갖는 뜻의 애매성 (ambiguity)도 설명해 준다고 그는 말한다.

(10) snake-poison

1) Lees는 (3b)와 (3c)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 (a) windmill: the huge machine used to create powerful drafts in wind-tunnels for aerodynamic research by means of rotating blades

(b) flour mill: the well-known and dangerous explosive property of flour dust utilized to power a mill of some sort (Lees, 1060: 117)

항공역학적 실험을 위해 만든 공동(空洞)의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를 windmill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가루 먼지의 가공할 폭발력을 이용한 방아간이 있다면 그것을 flour mill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windmill과 flour mill은 각기 (2)와 같은 두개의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a) windmill: (i) Wind powers the mill.

(ii) The mill creates wind.

(b) flour mill: (i) The mill grinds the flour.

(ii) Flour powers the mill.

- (a) poisonous substance made from snake venom \Leftarrow The snake gives the poison. (cf. snake oil, snakeskin, snake tract, etc.)
- (b) snake's saliva-like secretion \Leftarrow The snake has the poison.(cf. snake venom, snakehead, snakeblood, etc.)
- (c) a repellent called *snake poison* \Leftarrow The poison is for the snake. (cf. snake food, snake pit.)

이처럼 *snake-poison*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뜻, 다시 말해 ‘뱀에서 빼낸 독’, ‘뱀이 가지고 있는 독’, ‘뱀 퇴치약’ 따위의 여러가지 뜻은 이것이 (10)에서 보듯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저형에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Lees는 다중애매성 (multiple ambiguity)의 또 다른 예로서 (11)의 예를 들고 있다.

(11) pontoon bridge

- (a) bridge supported by pontoons (like *steamboat* = boat powered by steam)
- (b) bridge floating on pontoons (like *seaplane* = plane landing on the sea)
- (c) bridge made of pontoons (like *blockhouse* = house made of blocks)
- (d) pontoons in the form of a bridge (like *cell block* = cells in a blocks)

다음 두가지 해석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 (12) (a) bridge of a pontoon (like *steamboat* = boat powered by steam)
- (b) bridge for pontoons (like *ashtray* = tray for ashes)

여기서 우리는 Jespersen과 Lees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Jespersen은 주어진 합성어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뜻을 알아내려고 했으며,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 비해 Lees는 합성어들이 갖는 다양한 뜻의 차이는 그들의 기저 문장이 갖는 다양한 뜻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합성어의 다양성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Jespersen이 합성어에서 출발하여 그 것이 갖는 뜻을 알아내려고 한 것에 비해 Lees는 반대로 합성어들이 갖는 여러 뜻에서 출발하여 그 표면형에 이르러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뜻이 같은 것은 무엇이든 변형으로 관련짓고, 한편 하나의 표면형이 여러 개의 뜻을 가질 때 그것들을 각기 다른 기저형에서 도출한다는 당시의 생성문법의 원칙에 입각하면 당연한 분석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간의 사정을 Chomsk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3) In the earliest work on transformation grammar [cf. Lees (1960)], the correctness of the

transformationalist position was taken for granted; and, in fact, there was really no alternative as the theory of grammar was formulated at that time (Chomsky, 1970: 188).

Lees(1960)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성명사는 기저 문장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통사론적 관계에 근거하여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명사적합성어가 갖는 다중매성은 복수의 기저 문장과 변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셋째, 변형에 의한 합성어 형성은 예를 들어 windmill과 flour mill이 비록 표면상으로는 모두 명사+명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 사이의 문법 관계가 같지 않다는 우리의 직관을 설명해 준다. 한마디로 말해 Lees는 합성어를 통사부에서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성어형성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부산물은 합성어의 문법성을 그 기저 문장의 문법성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명사적 합성어가 문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면 그것은 그같은 합성어를 뒷받침할만한 기저문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y fish라는 합성어가 성립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합성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적격의 문장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처음 보기에 제아무리 부자연스러운 합성어라도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문법적인 기저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합성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사전위 형용사 (prenominal adjective)를 서술형용사(predicative adjective)에서 도출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선택제한(selectional restriction)의 공통성을 포착하려 했던 통사론의 관행과 일치한다.

Lees가 기저의 문장에서 합성어를 도출해내는 과정의 대강을 알아보기 위해 도출의 한 예를 적용된 변형규칙들에 대한 설명 없이 (14)에 제시해 놓았다.

(14) girlfriend

the friend is a girl ⇒ the friend who is a girl ⇒ the friend a girl ⇒ the girl friend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예에 속한다. curling iron과 같은 합성어를 (15)와 같은 기저형에서 도출하기 위해서 무려 10여 개의 변형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15) The iron is for N _a .	}	N _a =action nominal
Mary curls hair with the iron.		
The iron is for Mary's curling of hair with the iron.		
... iron which is for Mary's curling of hair with the iron...		
...iron for Mary's curling of hair with the iron...		

...iron for Mary's curling of hair with the iron Pron...

...iron for Mary's curling of hair...

...iron for the curling of hair...

...iron for háir cúrling...

...háir cúrling iron...

...cúrling iron...

이처럼 Lees는 종래의 이론가들이 형태에서 뜻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과는 반대로 뜻에서 형태를 얻어냄으로써 합성어가 갖는 문법성과 애매성, 그리고 표면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상이한 문법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탁출한 직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정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대한 비판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4)가 보여주듯이 기저의 문장에서 합성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계절에 있는 동사를 삭제해야 하는데, 이처럼 삭제되는 것이 어휘적 요소일 때 이와 같은 삭제 변형규칙은 삭제의 복원가능성의 조건 (recoverability condition (on deletion))을 어기게 된다.

복원가능성의 조건은 Katz/Fodor(1964)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이것은 삭제변형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Chomsky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6) ...a deletion operation can eliminate only a dummy element, or a formative explicitly mentioned in the structure index (for example, *you* in imperatives), or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a category..., or an element that is otherwise represented in the sentence in a fixed position (Chomsky, 1965: 144-5).

Chomsky의 이 말을 간단히 줄이면 복원가능한 것만 변형규칙으로 삭제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이 없다면 예를 들어 John ate a hamburger (an apple/three slices of pizza) 등의 무수한 심층구조에서 임의의 목적어를 삭제하여 John ate라는 동일한 문장을 도출하게 되며, 이것은 '변형은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표준이론 (standard theory)의 명제를 어기게 된다.

(17)의 예들을 살펴보자.

- (17) (a) windmill \Leftarrow Wind powers the mill.
- (b) flour mill \Leftarrow The mill grinds the flour.
- (c) car thief \Leftarrow the thief steals the car.

주어진 합성어들을 (17)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각각의 기저형에서 도출한다면 (17)의 세 합성어를 위해서는 각각 *powers*, *grinds*, *steals*의 단어들을 삭제해야 한다. 이것들은 (16)의 조건을 어기고 있어 복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성어를 문장에서 도출하는 한 삭제해야 할 동사의 수 만큼의 변형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Lees 자신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책의 143쪽에서 *steamboat*나 *car thief*의 경우처럼 N_1 과 N_2 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에 있는 합성어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 (18) In many such compounds the omitted verb itself is one only of a very small set, all similar in meaning, and it might be possible therefore to formulate the rules for generating these compounds in term of one or a few individual verbs, such as *make*, *yield*, *cause*, *produce*, etc. (Lees, 1960: 143)

다시 말해 삭제되는 동사들의 수를 줄여 한데 묶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어 그같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19) Unfortunately, however, it seems quite unlikely that all the members of one large, productive class of subject-object compounds can be so treated in terms of just a few specified verbs.

For example, while *disease germ*, *oil well*, *credit union*, and many others in this group might be taken from sentences with one of these cognate "cause"-verbs, it is at least difficult to so construe *hour glass*, *gas stove*, *sunflower*, and the paradigm example itself, CAR THIEF. The most natural source to chose [sic] for the latter would, of course, be the sentence: *The thief steals the car...* (Lees, 1960: 143)

(18)과 같은 생각에 대해 Lees는 미련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Lees(1970)은 그같은 생각을 구체화한 제안이며, 다음에 살펴 볼 Levi(1978)은 다른 아닌 (18)을 구체화한 제안이다.

둘째, 문제는 변형규칙의 수가 많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합성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수많은 삭제규칙들이 합성어형성이라는 목적 이외에는 달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변형규칙이 어떤 단어 하나만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같은 규칙의 타당성은 심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Lees처럼 합성어를 기저의 문장에서 도출하는 경우 하나의 합성어를 위해 복수의 기저 문장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기저형의 불확실성(indeterminacy)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windmill이라는 합성어는 적어도 (18)에 열거한 것과 같은 기저 문장들에서 도출이 가능하다.

- (20) (a) The wind powers the mill.
- (b) The wind activates the mill.
- (c) The wind makes the mill function.
- (d) The mill is activated by the wind.

넷째,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어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기저의 문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 (21)이 그 예들이다.

- (21) (a) an egghead \Leftarrow (an intellectual person) \Leftarrow ?
- (b) a green blackboard \Leftarrow *a blackboard which is green

(21a)는 Panini의 bahuvrihi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조언어학자들이 외심적 합성어(exocentric compound)라고 불렀던 것이다. 외심적 합성어는 이 밖에도 red coat(영국 군이)이라던가 birdbrain(바보) 등 수없이 많은데, 구태여 그 기저형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예들에 대해 각기 (22)와 같은 중간 기저형을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은 그것들대로 (23)에 열거한 것과 같은 기저 문장들을 필요로 한다.

- (22) (a) an egghead \Leftarrow an eggheaded person
 - (b) a red coat \Leftarrow a redcoated man
 - (c) a birdbrain \Leftarrow a birdbrained man
- (23) (a) The person has a head which looks like an egg.
 - (b) The man is wearing a coat which is red.
 - (c) The man has a bird's brain.

우리는 (23)의 문장들의 관계절에서 look나 be, have 동사와 관계사를 삭제하고 관계사 뒤에 있던 형용사를 선행사 앞에 옮겨오는 규칙을 적용하여 (22)의 화살표 오른쪽에 열거한 것과 같은 중간 단계를 도출하고, 이들에게 각기 주요부(head)를 없애버리는 주요부절단규칙

(beheading rule)을 적용해서 각각의 합성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23)이 주어진 합성어들의 유일한 기저 문장이 아니라는 문제와, 이들로부터 필요한 합성어를 얻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까마득한 과정들 외에도, 정작 문제는 (23)의 기저 문장들이 (24)와 같은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24) (a) an eggheaded man = an intellectual person

(b) a rea coat = a British soldier

(c) a birdbrain = a stupid man

그나마 (22)의 예들은 비교적 가시적 특성을 갖는 예들이다. *butterfingers*(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사람; 손재주가 서투른 사람)와 같은 은유적인 예에서는 기저 문장으로부터의 합성어 도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와 같은 도출과정들을 통사부에서 다루게 된다면 통사부는 너무 복잡해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21b)는 단어와 지시물(referent) 사이에 생긴 뜻의 괴리에서 비롯된 경우인데, *blackboard*라는 합성어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에는 모든 흑판이 까만 색이었겠지만 그 뒤 흑판의 색깔이 다양해지면서 녹색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흰색 같은 흑판마저 생기고 보면 (21b)와 같은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의미표류(semantic drift)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의미변화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단어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합성어를 기저의 문장에서 도출하는 한 (21b)와 같은 경우는 각오해야 한다. 외심적 합성어는 형태론의 어떤 이론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합성어의 근원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에서는 특히 문제가 된다. 변형에 의해 합성어를 도출하는 문법이론에서는 이들이 갖는 특이한 자질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변형은 규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는 연쇄에 들어 있는 어휘적 특성에 의해 묶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휘목록에서의 예외는 합성어형성이나 파생어형성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적격의 기저 문장이 있고, 또 여기에 마땅한 변형규칙들을 적용해서 얻어진 합성어가 적격이 아닌 경우 Lees는 그 설명의 부담을 안게 된다. (25)의 예들을 보자.

(25) (a) The servant is a man \Rightarrow a man-servant

(b) The servant is a maid \Rightarrow a maid-servant

(c) The friend is a girl \Rightarrow a girlfriend

(d) The servant is a girl \Rightarrow *a girl-servant

(e) The servant is a widow ⇒ *a widow-servant

(f) The servant is a soldier ⇒ *a soldier-servant

(25)의 기저문이나 여기서 도출된 합성어 모두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적격의 형태이지만 (25d,e,f)는 실제로는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은 언어외적인 화용론적(pragmatic) 요인에 의한 것이다. Lees의 제안처럼 합성어를 통사부에서 도출하는 경우 통사부는 수많은 화용론적 제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결점 외에도 Lees(1960)에서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합성어의 생성과정을 N_1 과 N_2 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 (26) (I) Subject-Predicate
- (II) Subject-"Middle Object"
- (III) Subject-Verb
- (IV) Subject-Object
- (V) Verb-Object
- (VI) Subject-Prepositional Object
- (VII) Verb-Prepositional Object
- (VIII) Object-Prepositional Object

이것은 앞서 (4)에 열거한 Jespersen의 분류를 연상시킨다. Lees는 Jespersen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그가 의미론적 분류학에 치우쳤기 때문에 합성어의 설명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Jespersen과 비교할 때의 Lees의 장점과 특징은 전자가 N_1 과 N_2 의 관계를 한정된 수의 의미론적 범주에 담으려고 했던데 비해 Lees는 합성어의 뜻은 애매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N_1 과 N_2 의 관계는 한정된 수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6)은 Lees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26)에 설명상의 편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Lees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다음과 같은 Downing(1978)의 말은 Lees(1960)에도 해당 될 것이기 때문이다

(27) It is apparent that any attempt to formalize these factors in terms of a list of possible compounding relationships is bound to fail. Since virtually any relationship may serve in the appropriate context, such a list would be so long as to be useless. (Downing, 1978: 840)

Lees(1960)은 생성문법의 이론적 테두리 안에서 합성어 형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도라는 사실 못지않게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Chomsky(1957)의 문법 이론을 어떤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데 최초로 본격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찬반 간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한 비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Lees가 글을 썼던 당시 변형문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변형은 뜻을 바꾸지 않으며, 따라서 무엇이든 관계가 있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뜻의 공통점이 있는 것은 동일한 기저형에서 도출되며, 반대로 동일한 표면형이 여러 개의 뜻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 개의 기저형에서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 유일한 길은 이들을 변형규칙에 의해 관계 짓는 것이었다. 따라서 Lees의 한계는 당시 언어이론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를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Lees의 생각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 70년 전후에 McCawley, Lakoff, Ross 등이 주장한 이른바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에 이르게 된다. 우선 이들은 그 유명한 Tom killed Dick라는 문장과 Tom caused Dick to die라는 두 문장의 진위치(眞僞值 truth value)가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 두 문장은 하나의 기저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ie가 가장 원초적 형태는 아니며, 이것은 그것대로 보다 원초적인 기저형을 가지게 된다. 생성의미론자들은 dead, die, kill의 상호관계를 (28)처럼 설명한다.

- (28) (a) NEG + ALIVE + dead
 (b) BECOME + NEG + ALIVE = die
 (c) CAUSE + BECOME + NEG + ALIVE = kill

이것이 이른바 의미론자(generativist)와 해석론자(interpretivist)와의 유명한 논쟁을 일으키게 한 도화선이 되었고, 이 논쟁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1970년에 Chomsky가 Remarks on nominalization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Chomsky(1970)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Lees(1960)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 Lees(1970)과, 이것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던 Levi(1978)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

III. Levi(1978),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mplex Nominals*

1970년에 Lees는 Lees(1960)에 대한 비판들을 고려한 새로운 합성어 형성과정을 제안하게 된다. Lees(1960)과의 중요한 차이는 기저형이 보다 의미론적인 것이 되었다는 점이고, 그

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복원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일반적 동사’ (generalized verb) 라는 것을 제안하여 복원가능성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은 Lees(1960)에서 잠시 비쳤던 앞절의 (18)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대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가 제안한 이른바 일반적 동사라는 것으로서 N_1 과 N_2 사이의 그 수많은 관계를 모두 망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적 동사는 다른 보통 동사와 다를 바가 없어 삭제변형규칙이 이것들만을 삭제하게 만드는 데에 문제가 있다. Lees(1970)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Levi(1978)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1975)의 그녀의 학위논문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onpredicating Adjectives in English*를 수정한 것이다.

Levi가 설명하려는 것은 (1)-(3)에 제시한 이른바 복합명사류 (complex nominal) 라고 부르는 것이다.

- | | |
|------------------------|--------------------|
| (1) apple cake | deficiency disease |
| time bomb | autumn rains |
| doghouse | nicotine fit |
| windmill | color television |
| daisy chain | surface tension |
| (2) Markovian solution | film producer |
| American attack | city planner |
| presidential refusal | dream analysis |
| musical criticism | metal detection |
| (3) electric clock | musical clock |
| electric shock | musical criticism |
| electrical engineering | musical interlude |
| electrical conductor | musical comedy |
| electrical outlet | musical talent |

(1)-(3)의 세 경우 모두 명사나 형용사의 수식어가 주요부(head) 앞에 오는 외형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1)은 명사적 합성어(nominal compound)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검토돼 온 구조이다. (2)는 주요부가 명사화(nominalization)된 예들로서 이

또한 많은 관심을 모아 왔던 구조이다. 그러나 (3)은 가장 소홀히 여겨져왔던 구조라고 Levi는 지적하고 있다. 이들을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째로,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들은 Bolinger (1967)가 지적한대로 일반적인 형용사들처럼 서술부의 위치에서 도출할 수가 없다. 설사 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하는 뜻과는 달라진다. (4)의 예들을 보자.

- | | |
|---------------------------|---------------------------------|
| (4) (a) a rural policeman | (b) *a policeman who is rural |
| a logical fallacy | *?a fallacy which is logical |
| an electrical engineer | *an engineer who is electrical |
| a solar generator | *a generator which is solar |
| a musical criticism | *?a criticism which is musical |
| a linguistic scholar | *a scholar who is linguistic |
| a dental appointment | *an appointment which is dental |

a rural policeman은 기저의 관계절을 갖지 못하며, a logical fallacy는 “논리학에서의 오류”(a fallacy in logic or logical reasoning)이며 (4b)와 같은 “논리에 맞는 오류”(a fallacy which conforms to the rules of logic)의 뜻은 아니다.

둘째, (3)의 형용사들은 그것들이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5)의 예들을 보자.

- (5) (a) musical clock = clock which makes music
 musical comedy = comedy that has music
 musical interlude = interlude which is music
 musical criticism = criticism of music
- (b) electrical clock = clock powered by electricity
 electrical shock = shock caused by electricity
 electrical generator = generator producing electricity
 electrical heating = heating by means of electricity

이처럼 형용사 musical과 electrical은 그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가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한편 musical clock과 electrical clock을 비교해 보면 이들 형용사가 갖는 뜻의 차이는 그들 뒤에 오는 명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musical은 which makes music의 뜻을 갖는데 비해 electrical은 which makes electricity의 뜻이 아니라 (which is) powered by electricity의 뜻을 가지기 때문이다.

Levi는 합성어들이 갖는 이와 같은 복잡한 특성들 때문에 Jespersen으로부터 Chomsky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포기하고, 이들을 고유의 특성을 갖는 (idiosyncratic) 단위로 취급하여 단순히 어휘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지적한다. Levi는 (1)-(3)과 같은 복합명사류가 갖는 특징을 두가지 들고 있는데 그 하나는 체계성 (systematicity)이고, 다른 하나는 애매성 (ambiguity)이다. 문법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Levi는 이들이 정말 규칙성은 없이 고유 특성만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들을 일일이 외워야 할 것인데, 사실을 그렇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외면상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계적인 규칙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 증거로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첫째, 만약에 복합명사류가 일일이 외워야 하는 것이라면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복합명사류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회귀성 (recursiveness)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6) apple pie, apple pie plate, apple pie plate crack, apple pie plate crack pattern, apple pie place crack pattern studies, etc.

둘째로, 만약에 복합명사류들을 하나씩 외우는 것이라면 이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을 때 이들 단어들에 대한 뜻의 설명 없이도 가능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처음 들어보는 복합명사류라도 우리가 그 뜻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evi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합명사류에서 볼 수 있는 약간의 고유특성 (idiosyncrasies) 때문에 이들이 갖는 의미론적, 통사론적 규칙성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3)의 예들은 이와 같은 체계성을 갖는다는 특징 외에도 다양한 뜻의 애매성도 갖는다고 Levi는 말하고, 문법은 이들이 갖는 다양한 뜻을 그 표명형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같은 목적을 위해 그녀는 NP와 S를 구성원으로 하는 NP에 서술부삭제규칙 (predicate deletion)과 서술부명사화규칙 (predicate nominalization)을 적용하여 복합명사류들을 도출하고 있다.

서술부삭제규칙은 Lees(1960)이 제안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Lees(1960)과 다른 것은 복원가능성 (recoverability)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Lees(1970)에서 제안된 일반적 동사 (generalized verb)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규칙으로 삭제할 수 있는 서술동사의 수를 9개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관계절을 변형하여 복합명사류로 바꾸는 과정에 이 규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규칙에 의해 삭제될 수 있는 동사는 이른바 그녀가 복원가능삭제서술부 (Recoverably

Deletable Predicate-RDP) 라고 부르는 9개의 서술동사들이다. (7)에 이들을 열거해 놓았다.

(7) CAUSE	tear gas/drug deaths	(causative)
HAVE	picture book/lemon peel	(possessive/dative)
MAKE	honeybee/snowball	(productive, constitutive, compositional)
USE	voice vote	(instrumental)
BE	soldier ant	(essive/appositional)
IN	field mouse	(locative [spatial or temporal])
FOR	horse doctor	(purposive/benefactive)
FROM	olive oil	(source/ablative)
ABOUT	tax law	(topic)

CAUSE, HAVE, MAKE의 세 동사는 두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가 주어와 목적어일 때를 구별하여 각기 두개의 예를 열거해 놓았다. 한편 괄호 속에는 전통적인 술어를 적어 놓았다.

서술부삭제규칙을 적용하여 합성어를 생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musical clock이라는 복합명사류의 도출과정을 (8)에 제시하겠다.

(8) clock ## clock make music ##

clock ## clock music-making ## (합성형용사형성)

clock ## clock be music-making ## (연결어(copula)삽입)

clock ## which ## be music-making ## ## (관계절형성)

clock music-making (WH-삭제)

music-making clock (서술부전치)

music clock (복원가능삭제서술부삭제: make1)

musical clock (형태론적 형용사화) (Levi, 1978, 81)

서술부명사화규칙은 (2)의 parental refusal과 같은 예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데, (2)에 열거된 복합명사류의 주요부는 모두 명사화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참고삼아 (9)에 parental refusal의 도출과정을 열거해 두겠다.

(9) 첫째 순환	/ACT/ ## REFUSE PARENT x ##
1. 어휘삽입	/ACT/ ## [refuse] [parents] [x] ##
2. 격전치사표기	/ACT/ ## [refuse] [by parents] [x] ##
두번째 순환	
3. Act 명사화	[/ACT/ + refuse] [by parents] [of x]
4. 명사화의 어휘삽입	[refusal] [by parents] [of x]
5. 미표기명사구삭제	[refusal] [by parents]
6. 주어전치	[by parents] [refusal]
7. 목적어첨가	
8. 목적어전치	
9. 주어속격	[/GEN/ + parents] [refusal]
10. 주어첨가	[parents refusal]
11. 형태론적 형용사화	[parental refusal] (Levi, 1978, 185)

우리는 앞서 Levi가 서술어삭제규칙을 9개의 서술동사에 한정 한 것은 복원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이처럼 삭제규칙을 한정된 동사에 국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는 동사가 하나가 아닌 한 여전히 복원가능성은 문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녀 자신도 지적하고 있다 시피 서술어삭제규칙에 의해 얻어진 명사류는 11개의 애매성을 갖게 된다. 그 까닭은 복원가능삭제서술부가 9개인데다 그 중 CAUSE, HAVE, MAKE의 경우에는 명사 앞의 수식어가 통사적으로 주어, 목적어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Levi는 가능한 모든 뜻을 표면형에다 연결시키는 것이 문법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매성의 문제는 그녀에게 그리 만만한, 그리고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Levi에게는 애매성을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따르게 된다. 우선 일을 쉽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째는 은유적인 뜻을 갖는 복합명사류로서 windbag(수다쟁이) 따위의 부류이다. 둘째는 어휘화된 것으로서 shell shock(전투 신경증)가 그 예가 된다. 이들은 이른바 외심적 합성어들로서 이들을 의미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요는 생산적인 것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들에 대해서는 의미론적인(semantic), 혹은 화용

론적인(pragmatic) 언어외적(백화사전적) 지식을 슬기롭게 이용하면 애매성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Levi는 말한다. 의미론적 지식을 이용하는 예로서 그녀는 *marginal note*, *sea turtle*, *marital sex* 등을 들고, 이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데, 그 까닭은 *margin*과 *sea*가 장소를 나타내며, *marriage*(\ll *marital*)는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한편 화용론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예로서 *musical clock*을 들고, 이것을 'clock that makes music'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음악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장치들이 더 많다는 우리의 지식에 비롯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설명들이 갖는 싱빙성의 문제에 앞서 그녀 자신이 인정한 투명성의 연속성(continuum of transparency)의 문제가 있다.

(10) Transparency

- (a) mountain village, family reunion, lemon peel,...
- (b) grammar school, briefcase, polar bear, boy friend, ball park,...
- (c) birdbrain, razorback, cottontail, blockhead,...
- (d) polka dot, monkey wrench, flea market,...
- (e) honeymoon, fiddlesticks, duck soup,...

Opacity

(10)이 보여주는 것은 (a)에 가까울수록 뜻이 투명하고 (e)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a)는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b)는 *grammar school*(중학교)의 경우처럼 아마도 한때는 투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학교에서는 문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뜻이 아주 투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 (c)는 의심적 합성어들이다. 이들은 한때 주요부와 함께 사용되어 비교적 투명한 뜻을 가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birdbrain*(바보)은 처음에는 *birdbrained man*처럼 주요부와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나 뒤에 주요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의심적 합성어가 되어 전보다 불투명해졌을 것이다. (d)는 다분이 숙어적이며 (e)는 완전한 숙어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Levi가 (10)의 어디까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점이다. (e)의 *honeymoon* 따위를 제외할 것은 분명하지만 (b)의 *grammar school*과 같은 예들을 그의 9개의 복원가능 서술동사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Levi는 합성어가 그 투명성을 잃게 되면 그때 어휘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연속성을 갖는 투명성을 어느 정도 잃게 되면 어휘부에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10)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녀의 문법이 어디까지를 설명해야 하는

가가 분명치 않다.

Levi가 정리한 그녀의 이론을 더욱 간단히 줄이면 (11)과 같이 된다.

- (11) (a) 모든 복합명사류는 관계절이나 명사구 보충어(NP complement) 구조 안의 주요부와 S로 이루어진 명사구에서 도출된다.
- (b) 복합명사류와 그 기저형의 의미론적 제약은 동일하다.
- (c) 어떤 복합명사류도 애매성을 갖기 마련이며, 이 애매성은 우리의 언어 능력의 일부이므로 문법은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 (d) 복합명사류는 모두 기저형의 서술부의 삭제와 명사화의 두 통사과정에 의해 도출된다.
- (e) 삭제의 의해 얻어지는 복합명사류는 CAUSE, HAVE, MAKE, BE, USE, FOR, IN, ABOUT, FROM의 9개의 복원가능서술부의 어느 하나를 삭제해서 얻어진다.
- (f) 이때 생기는 애매성은 의미론적, 화용론적 분석에 의해 엄청나게 줄어든다.
- (g) 여기서 제안된 복원가능서술부는 언어보편적일 가능성이 크다.
- (h) 복합적 명사류의 형성과정은 규칙적인 통사론적 변형과 고유의 형태론적 파생이나 어휘 항목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복합적 명사류의 형성 과정은 완전히 규칙적인 통사과정이나 부분적인 생산성만 갖는 파생과정이나 전적인 고유특성을 갖는 어휘항목 규칙들과도 같지 않다.

Levi 문법의 가장 큰 특징은 Lees(196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성어를 통사규칙에 의해 도출한다는 것인데, 비록 Lees(1960)과는 달리 삭제되는 동사의 수를 9개로 제한하는 등의 제약을 문법에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Lees에 대해 가했던 비판을 Levi에게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복합적 명사류를 어휘부에 넣는 것에 반대하는 Levi의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갖는 규칙성은 기저형에 통사규칙들을 적용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합성어들을 형태부(morphological component)에서 도출하더라도 그 규칙성은 얼마든지 설명해낼 수 있다. 둘째로, Levi는 합성어들이 갖는 고유의 특성보다는 그들이 갖는 규칙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이 점에서는 우리도 그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바이지만, 그 규칙성이라는 것은 앞서 (10)에서 보았듯이 단계적인 것이어서 Levi가 바라듯 분명히 양분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Lees(1970)의 경우도 그랬지만 그녀가 제안한 9개의 서술동사로서의 합성어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한 뜻을 나타내기는 너무나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로 dragon boy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다고 하자. 이 단어는 적어도 (12)와 같은

뜻들을 가질 수 있다.

- (12) (a) 용을 타고 다니는 동화 속의 소년
 (b) 용들이 키운 소년
 (c) 용띠 해에 태어난 소년
 (d) 용처럼 생긴 소년
 (e) 용의 그림만 그리는 소년
 (f) 입에서 용을 뱉어내는 동화 속의 소년
 (g) 용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소년, 등등

이 밖에도 더 많은 뜻들을 생각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많은 뜻들을 그녀의 9개의 동사로 어떻게 도출해 내는가 이다. 넷째, 앞서 (8)과 (9)에서 Levi는 도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형태론적 형용사화의 과정을 설정해 놓았다. 이 과정에 의해서 music이 musical이 되었으며, parent가 parental이 되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heat→thermal, moon→lunar, city→urban과 같은 변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Levi는 그같은 변형의 자세한 과정이나 조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형을 가능케 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규칙이 단 하나의 단어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III.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어형성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론적 접근 방법인 Lees(1960)을 살펴 보고, 이어서 이것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Levi(1978)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탁출한 직관에도 불구하고 어형성에 관한 의미론적 접근방식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최근에 이르러 Sproat(1985), Lieber(1992)를 비롯하여 독립된 형태부의 존재를 무시하고 통사규칙이나 통사부의 원리에 의해 어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이 반드시 Lees(1960)이나 Levi(1978)과 생각이 꼭 같지는 않겠지만 그 주장의 근본은 같으므로, 이들에게도 여기서 우리가 Lees(1960)과 Levi(1978)에 대해 가했던 것과 동일한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linger, D. (1967). Adjectives in English: Attribution and predication. *Lingua* 18, 1-34.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Jacobs, R. and Rosenbaum, P.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S: Balisdel.
- Downing, P. (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 810-42.
- Jespersen, O. (1937). *Analytic Syntax*. London: George Allen & Unwin.
- Jespersen, O. (1942).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VI-Morpholog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Katz, J. J. & J. A. Fodor (1964). The structure of semantic theory. *Language* 39, 170-210.
- Lees, R. (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 The Hague: Mouton.
- Lees, R. (1970). Problems in the grammatical analysis of English nominal compounds. In Bierwisch, M. and Erich, K. (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174-186.
- Levi, J. (1975).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onpredicating Adjective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Levi, J. (1978).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mplex Nominals*. New York: Academic Press.
- Lieber, R. (1988). Phrasal compounds in English and the morphology-syntax interface. *CLS* 24: 202-222.
- Lieber, R. (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eper, T. and Siegel, D. (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 *LI* 9, 199-260.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 MIT Press.
- Sproat, R. (1985). *On Deriving the Lexicon*. Ph.D. dissertation, MIT.

Abstract

Compound Formation in Generative Semantics

Sang-buom Cheu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inadequacy of the early approach to word-formation by the generativists. Two important monographs proposed in this framework, Lees(1960) and Levi (1978), are critically reviewed and it is shown that both of them confront many difficulties which are insurmountable. Same kind of criticism will hopefully apply to the revival proposals by Sproat (1985) or Lieber(1992).